MARKET INSIGHT

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

2022.8.9

코스피, 2차전지주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 확대되며 상승 전환

김석환 seokhwan.kim@ 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 miraeasset.com

한국 증시 장중 리뷰: 외국인 매수 유입 확대와 2차전지 업종 강세에 상승 전환

-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하락했던 영향으로 국내 증시 하락 출발.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향 조정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기대에 따른 2차전지 업종 강세. 특히 오후들어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 확대되며 지수 추가상승 견인
  - 2차전지 업종 강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기대감 및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국내 2차전지주 반사수혜 기대감 반영
  - 음식료 업종 상승 지속. CJ제일제당의 2분기 호실적 발표와 최근 글로벌 곡물 가격 안정화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행한 음식료 업종 마진 개선 기대
  -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 뉴욕 연은이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하면서 달러 약세. 다만,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상존해 달러 약세폭은 제한

아시아 증시 장중 리뷰 중국 증시, 전기차 및 태양광 업종 강세 뚜렷

- 중국 주요 지수 혼조세. 태양광, 전기차 업종 강세. IT 하드웨어, 제약 바이오 업종은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약세. 역외위안화 환율은 재차 6.75선으로 복귀하며 대만사태 이후 안정화 국면. 다만, 외국인은 매도세 확대
  - 전기차 관련주 강세. 중국 승용차연합회의 7월 승용차 판매량 데이터 발표 및 2022년 연간 판매목표치 상향 조정. 전기차 7월 월간 판매량 48.6만대 (+117.3% YoY/ -8.5%MoM), 7개월 누적 273.3만대 (+121.5%YoY)를 기록하면서 2022년 들어 W자형 회복. 하반기에도 판매 증가 기대감 반영되며 업종 전반 강세 견인
  - 태양광 업종 강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중국 태양광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 언론은 올해들어 미국 측이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무역 관련 관세 면제 조치 등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밝힘

- 홍콩 주요 지수도 혼조세. 에너지, 소재, 소프트웨어 업종 강세.
  - 장중에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 부동산 구매시 이중 부과되는 인지세 면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부동산주 강세. 다만, 홍콩 정부가 관련 내용에 공식 부인하면서 상승폭은 재차 축소

미 증시 전망 커진 관망세에 등락 제한

-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관망세 ↑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 높이는 여러 지표들 발표.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세계식량지수는 전월대비 13.3포인트 하락하며 2008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7월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향후 1년, 3년 기대인플레이션 큰 폭으로 하락. 또한 식품 및 에너지 기대인플레이션은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역대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 여기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내 구매물가지수는 2015년 11월 이후 최저 기록

금일 발표 예정인 2분기 단위당 고용비용지수(잠정)는 전분기 12.6%에서 하락한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9.5%로 예상. 전일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지수(ETI)가 지난 3월 이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 관련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제 지난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5.2%로 지난 3월 5.6%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부담

이외 미국자영업연맹(NFIB)에서 발표하는 소기업낙관지수 7월 수치가 공개될 예정. 지난 6월 89.5를 기록하며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향후 전망지수도 61%를 기록하며 48년래 최저를 기록했던 만큼 미국 소비자와 밀접한 사업체의 경기 동향 파악 가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7월 경기선행지수(CLI)를 발표할 예정. 지난 6월 기준, OECD 내 대부분의 주요 경제와 지역에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 지속적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 '폭'이 중요할 듯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